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 개발 및 관련 변인 탐색

Developing the Scale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s with Students' Characteristics

김소연* · 지은림**

Soyeon Kim · Eunlim Ch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적 소통 역량’을 개념화하여 중학생 대상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음악적 소통 역량’과 관련되는 학생 배경변인들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예비검사를 거친 후 최종 23개 문항으로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를 210명의 남녀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발하였다. 내용타당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Cronbach- α 신뢰도 지수($\alpha=.956$)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관련변인 탐색 결과는 성별, 학교 외 음악교육 경험 유무, 음악적 소질 인식, 음악 모둠수업에서의 소통, 음악 공연 참여 선호가 음악적 소통 역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 타당도, 신뢰도, 중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cale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for middle-school students and explore its related variables. After a pilot study, the instrument of 23 items, which consisted of music knowledge, expression, appreciation, and application, was developed. For the scale, content validity and explorative factor analysis were made, and Cronbach's α (.956) proved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Also, students' gender, the experience of music lessons out of school, perception of his/her own musical talent, communication in music group class, and preference for participation in music performance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Key words: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validity, reliability, middle-school student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ssoya@naver.com

Graduate student,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 Co-author, E-mail: eunlim@khu.ac.kr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I. 서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p. 3). 이는 음악에 참여하는 창작자-연주자-감상자가 서로 음악을 매개로 하여 메시지와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으로(Hargreaves, MacDonald & Miell, 2005), 이러한 사람 간 이루어지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성의 교류는 심미성을 강조하는 음악교과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Park, Moon, Jang, Lim & Han, 2018). 따라서 음악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은 음악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음악적 소통 역량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은 6개의 음악교과 역량 중 학교 현장 음악교사들에게 가장 인식도가 높은 역량이며(Park, Moon, Jang, Lim & Han, 2018), 음악교육 교수 및 교사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 판단한 전 학년에 걸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기도 하다(Park, 2019). 또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대부분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등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구로 표현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음악적 소통 역량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19).

이와 같이 음악교과에서 음악적 소통 역량이 차지하는 교육적 가치가 크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의 6개 핵심 역량을 개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로는 음악교과 역량별 개념 및 하위 요인을 다룬 연구(Park, 2017; Park, 2019; Yoon, 2020; Ji, Yoon & Cho, 2019),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반영 분석 연구(Kim, 2019; Park, 2020a), 현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Min, 2020), 교과서에 반영된 음악교과 역량 분석 연구(Jang, 2018; Ju, 2017),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제시방식 및 내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Ju, 2019; Kim & So, 2021; Lee, 2019; Yang, 2017) 등이 있다. 그러나 음악적 소통 역량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게 수행된 연구는 매우 적다. 음악적 소통 역량에 대한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위한 단소 수업에 적용한 연구(Kim, 2018), 감상과 비평 수업에 적용한 연구(Park & Park, 2019) 등 음악교과 수업 및 활동에 적용된 소수의 연구들만이 있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적절한 수업활동을 수행한다고 해도 학생들에 대한 음악적 소통 역량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

활동을 개선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음악교사가 일정기간 동안 수업을 실행한 결과를 통하여 변화된 학생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 과정의 운영 효과를 판단하고 수업의 방향 및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소통 역량에 대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는 일차적으로 음악적 소통역량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개발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연구마다 음악적 소통 역량 하위 요인의 설정 기준 및 구체적 하위 요인 목록들이 서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교육 현장에서 음악적 소통 역량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반 언어적 의사소통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음악교과에서의 의사소통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음악적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의 개념과 특성을 재개념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생의 음악적 소통 역량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제작하고자 한다. 음악적 소통역량은 학교 급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과 수준이 다르므로 연구가 학교 급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음악교과 핵심 역량 중 음악적 소통 역량을 위한 중학생 대상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에 의해 평가된 중학생들의 수준을 문항별, 하위 영역별, 그리고 전체 문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중학생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 외 음악교육 경험 유무, 음악적 소질 인식, 음악 모둠수업에서의 소통, 음악 공연 참여 선호)과 음악적 소통 역량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역량의 개념

의사소통 역량이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6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존중하는 역량”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p. 2) <Table 1>. 다시 말해서 상황에 맞게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역량이다(Lee, Koo & Lee, 2016). 총론에 제시된 4가지 인간상에 대입한다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과 관련 되는 역량으로 개인적 측면의 역량이 아닌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측면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Namkung, Kim, Park, Jung & Park, 2015).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의사를 표현하는 발신자와 그 표현을 듣고 반응하는 수신자가 있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의 원활한 의사소통 중에는 각 의사소통 참여자가 상황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되므로, 한 개인의 의사소통 역량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하위 요인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발신자의 역량), 타인 이해 및 존중(수신자의 역량), 그리고 참여자 간의 견해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를 하기 위한 갈등조정이 제시되어 있다.

<Table 1> Meaning of communication competency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Communication competency
Meaning	Ability to express one's thoughts and feelings effectively in various situations and to listen and respect others' opinions
Sub-factors	•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Speaking, Listening, Writing, Reading, Understanding Text, etc.) •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others • Conflict reconciliation

백순근 외(Baek, Yoon, Shin, Son & Kim, 2017)는 고등학생 대상의 일반 의사소통 역량 검사도구를 개발하면서 하위 요인으로 발신력, 내용 구성력, 수신력을 들었다. 이 중 발신력과 내용 구성력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화자, 즉 발신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발신력은 다양한 방식(말하기, 글쓰기, 표정·몸짓, 시청각 자료, 상징·기호)을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내용 구성력은 전달할 내용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간결성,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분위기 조성)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므로 역시 발신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신자의 역량은 단일 요인인 수신력으로 수신자의 태도(경청, 적절한 반응)와 이해력(내용 이해력, 상황 파악력, 비교·분석)을 측정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수신자의 역량보다 발신자의 역량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음이 발견된다.

한편 이정우 외의 연구보고(Lee, Koo & Lee, 2016)와 이인화(Lee, 2019)는 CoE(Council

of Europe: 유럽 평의회) 프로젝트와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지식, 기능, 태도 영역을 기준으로 하위 요인을 범주화하고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식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의사소통 도구(언어, 준언어, 비언어)와 맥락(참여자, 목적, 상황)을 이해하는지와 관련된다. 기능은 의미 수용과 평가, 의미 생산과 표현, 점검과 조정으로 의사소통 참여자의 역할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존중, 적극성, 책임감 등 참여자 모두에 요구되는 자세로 개념화되었다.

위의 두 연구는 언어적 대화가 중심이 되는 일반적 의사소통을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두 검사도구는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이 말하기 또는 글쓰기인 교과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국어, 사회 교과와 같이(Lee, Koo & Lee, 2016)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역량은 인문 계열 교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반면 예술 교과 중 하나인 음악교과는 말하기나 글쓰기가 주된 의사소통의 방법이 아니다. 음악은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이 음악, 즉 소리로 음악교과만의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언급한 일반적 의사소통 검사도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음악적 소통 역량의 개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의 일반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를 음악교과 차원으로 연계, 해석하여 <Table 2>과 같이 음악적 소통 역량의 개념을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3).

음악교과에서의 의사소통은 음악을 매개로, 음악을 활용하여, 음악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것으로, 언어적 대화가 아닌 음악적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음악적 소통 역량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거나 타인의 음악적 상징이나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외적으로 표출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 때 음향적인 소통과 조절이 이루어지고 상호 존중하고 조절하는 하위 역량을 발휘한다(Jin et al., 2015). 이 중 ‘음악적 표현 및 수용’은 음악이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 비언어적인 음악적 표현이 의사소통의 주가 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총론에서 언급된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용어가 음악교과의 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의사소통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구분하듯 음악적 소통에서는 음악을 표현을 하는 음악 행위자와 음악을 듣고 수용하는 감상자의 역량을 함께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Meaning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Meaning	Ability to express one's thoughts and feelings musically by utilizing sounds, musical symbols, bodies, etc., and to communicate and coordinate efficiently by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with other person
Sub-factors	• Musical expression and acceptance •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others • Consideration • Conflict reconciliation

이러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념을 근거로 이후 진행된 다수의 연구들 (Kim, 2019; Min, 2020; Park, 2019; Yoon, 2020; Ji, Yoon & Cho, 2019)은 <Table 3>와 같이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을 수정, 보완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볼 때, 음악적 소통 역량을 개념화하고 하위 요인을 설정하는 기준은 의사소통 참여자(음악 행위자와 감상자)의 역할과 기능으로 분류하거나(Park, 2019; Yoon, 2020; Ji, Yoon & Cho, 2019) 또는 교과 역량을 발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성취기준으로서 지식, 기능, 태도로 분류하는 방법(Kim, 2019; Min, 2020)이 있다. 먼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활동에 중점을 둔 하위 요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음악적 표현(음악 행위자의 역할)’과 ‘음악적 표현에 대한 이해(감상자의 역할)’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음악교과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등 음악적 표현 활동을 통해 음악 행위자와 감상자가 소통하는 것이 주요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연구자에 따라 음악적 문해력, 참여자 간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역량 및 태도 등이 더 포함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식, 기능, 태도의 세 가지 요인으로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면 역량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총체적으로 균등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역량의 개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in, 2020). 하지만 이 방면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역할이 구분됨이 없이 지식, 기능, 태도의 각 영역에 따라 병렬로 나열하거나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요인들로 묶여 하위 요인이 구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Table 3> Sub-factors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Sources	Sub-factors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2015 musical curriculum revision, Jin et al. (2018)	• Musical expression and acceptance •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others • Consideration • Conflict reconciliation
Park, J. H. (2019)	• Individual musical expressions(musical activities, expressions, and performances) • Understanding other people's musical expressions (communication) • Musical literacy(musical meaning transfer, response)
Kim, J. H. (2019), Min, K. H. (2020)	• Knowledge(musical expressive knowledge) • Functions(musical expression, body expression, musical hearing ability, conflict mediation) • Attitude(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with others' expressions)
Yoon, S. W. (2020), Chi et al. (2019)	• Ability to listen and understand music • Various interactions through the use of music technology • Ability to express music •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music •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and maintain positive relationships through music

3.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

앞서 정리한 <Table 3>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는 공통적으로 음악지식, 표현, 표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의 4가지 요인으로 재개 념화 하였다. ‘음악지식’은 선행연구에서 음악적 문해력(Park, 2019) 또는 음악적 표현 지식(Kim, 2019; Min, 2020)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며 음악을 표현하거나 그에 반응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지식 소양이다. ‘표현력’은 음악을 표출하는 음악 행위 와 관련된 것으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및 모든 선행연구(Kim, 2019; Min, 2020; Park, 2019; Yoon, 2020; Ji, Yoon & Cho, 2019; Jin et al., 2018)에 포함되어 있어 음악적 소통 역량에서 필수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현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는 선행연구 에서 표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음악을 수용(Ministry of Education, 2015b)하고 이해 (Kim, 2019; Park, 2019; Yoon, 2020; Ji, Yoon & Cho, 2019)하며 공감(Kim, 2019)하는 감상자의 역량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음악 비평의 개념을 더하여 ‘감상력’이란 용어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용력’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응용력은 기존 작품을 재 현하거나 음악에 대해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악을 창작하여 표현하거나(Ministry

of Education, 2015b) 감상적 느낌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Ministry of Education, 2015b)으로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의 기술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1) 음악지식

음악적 소통 역량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음악지식’이란 음악 행위자와 음악 감상자, 즉 음악 소통 참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 지식 소양을 뜻한다. 음악 행위자는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기본 지식이 필요하며, 음악 감상자 또한 음악 행위자의 표현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음악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우선, 음악적 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음악지식은 음악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소통의 참여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연주 자세, 주법 등의 지식, 음악 용어에 대한 지식으로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을 포함한다(Kim, 2019). 표현 및 감상에서 음악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엘리엇(D. Elliott)으로, 그의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에서 이론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Music Matters 제1판(1995)에서 음악교육의 궁극적 실재가 음악을 만들어 내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보고 개인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내적 사고와 느낌이 외현적으로 구현되는 음악행위, 즉 ‘음악하기(Musicing)’가 음악의 본질임을 주장하였다(Min et al., 2017, p. 65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후 엘리엇과 실버만(M. Silverman)은 음악하기와 더불어 ‘감상하기’도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지식의 유형을 8가지, 즉 과정적 음악사고와 지식, 언어적 음악사고와 지식, 경험적 음악사고와 지식, 상황적 음악사고와 지식, 직관적 음악사고와 지식, 긍정적 음악사고와 지식, 윤리적 음악사고와 지식, 통제적 음악사고와 지식으로 제시하였다(Elliott & Silverman, 2015; 최은식 외 역, 2021). 이 중에서 첫째, 과정적 음악사고와 지식은 다양한 음악 표현활동을 할 때 필요한 음악지식이 표현 과정 중에서 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음악의 고유 구성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울리며 배합되어 음악을 이루는 것에 대한 지식(Kim & Chi, 2020), 악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 개인의 맥락, 해석, 직관,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지식들이 함께 연결되고 적용되어 나타난다.

둘째, 언어적 음악사고와 지식은 사실, 개념, 설명, 이론 등 문자 형태의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의 바람직한 자세와 연주법에 관한 설명, 작곡가와 작품의 배경 등 언어적으로 설명된 지식들을 통하여 음악을 표현하고

감상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어적 사고와 지식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표현과 감상 활동 과정에 적용되어 발현되는 지식이다.

셋째, 상황적 음악사고와 지식은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도구, 환경 등 맥락과 관계되는 지식이다. 표현 또는 감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 또 연주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상황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지식은 표현이나 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통제적 사고와 지식은 모든 지식을 모니터하고 조정하는 지식, 즉 관찰, 적응, 조절, 균형 등을 맞추는 메타인지적 지식이다(Min et al., 2017). 박미향(Park, 2020b)은 음악적 메타인지가 과제에 대한 전략, 계획, 점검, 평가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즉, 음악 행위자는 곡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인지적으로 표현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위의 ‘과정적 음악사고와 지식’, ‘언어적 음악사고와 지식’, ‘상황적 음악사고와 지식’, ‘통제적 음악사고와 지식’은 음악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하거나 오랜 음악경험으로 쌓아지는 지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중학생의 수준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음악지식이라 할 수 있다.

2) 표현력

표현력은 음악 행위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맥락과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게 연주로, 신체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역량을 뜻한다. 즉, 개인적 차원의 내적 공감이 타인과의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리의 형태로 외부로 표현되는 것으로(Seog, Moon & Choi, 2017), 개인이 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느낀 것을 노래, 악기 연주, 신체표현 등 음악 공연 또는 발표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표출하는 역량을 말한다. 음악이 공연 또는 발표형식을 통하여 표현될 때는 크게 보아서 노래나 악기 연주를 포함하는 ‘음악 연주’와 음악에 맞추어 춤으로 표현하는 ‘신체표현’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 음악 연주는 음악 행위자가 감상자에게 기존 작품에 행위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재해석한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다(Reimer, 2003; 최은식, 박덕주, 김경화 역, 2017). 음악 행위자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작곡가가 기보한 음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어떻게 소리로 표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악보에 적힌 여러 음악적 구성요소들을 외현적인 소리로 구현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행위자 자신의 감정도 소리에 담아 표현한다. 이를 위해 빠르기, 셈여림, 음색, 아티큘레이션 등의 음향 신호를 사용하면서 음악에서 특정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고 감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Juslin, 2009; Juslin & Lindström, 2010, p.335에서 재인용). 감상자는 음악 행위자

의 연주에서 들리는 음향 단서들에 의해 감정이 생성되고 상호 공감, 공유하게 되면서 음악적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음악 연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향적 표현력과 함께 몸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 신체언어(Body language)로 표현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음악 행위자의 신체 움직임은 음악적 표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슨(J. W. Davidson, 2012)은 악기 연주자가 공연 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 음악적인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진다고 밝혔다. 흔히 피아노 연주자가 강렬하게 큰 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온 힘으로 건반을 누를 때 그에 상응하는 큰 동작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부드럽고 가벼운 분산화음을 연주할 때에는 부드러운 몸짓과 함께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몸짓이나 표정은 실제로 소리를 더 감정적이고 표현적으로 만들어 감상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둘째, 신체표현 중에 춤은 음악에 맞추어 음악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버거, 사라이칼리오, 렉, 톰슨, 토이비아넨(B. Burger, S. Saarikallio, G. Luck, M. R. Thompson & P. Toiviainen, 2012)은 일반 참여자들에게 팝, 테크노 등 대중음악을 들려주며 자연스러운 춤 반응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공감상태가 특정한 특징을 보이는 춤동작들로 표현되었음을 밝혔다. 춤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음악에서 기쁨, 슬픔,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 연구대상들은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였으며,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 비슷한 동작의 춤을 추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악에 대해 신체 움직임을 연결하는 유리드믹스(Eurhythmics) 교육을 고안한 달크로즈(E. J. Dalcroze)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정 음악의 느낌을 안무로 표현할 때의 춤동작은 음악의 박자, 셈여림, 강세, 프레이즈와 같은 음악 요소들의 맥락과 자연스레 어울리게 표현되기 때문이다(Min et al., 2017). 따라서 음악과 함께 춤을 보는 감상자 역시 상대방의 동작에 표현된 감정선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Walk & Homan, 1984; Van Dyck, Burger & Orlandatou, 2017, p.123에서 재인용) 춤은 음악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표현력에 관한 내용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 체계 중 ‘표현’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현 영역은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여 노래, 연주, 신체 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영역으로, 음악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표현력 신장을 위한 음악 실기 능력을 요구한다. 관련 성취기준 문구와 해설에 제시된 ‘개성 있게 연주’, ‘노랫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표현’,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으로 창의적으로 표현’이라는 내용(Ministry of Education, 2015b)에서 앞서 살펴본 표현력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악 행위자

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춤의 방식으로 음악을 외현적으로 표출하는 표현력은 음악적 소통 역량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위 요인라고 할 수 있다.

3) 감상력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을 감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감상력’은 감상자의 반응으로써, 상대방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표현된 내용과 감정에 공감하며(Kim, 2019), 자신의 음악적 소양과 안목에 비추어 표현의 질을 비평하는 역량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음악에서의 비평은 음악 작품이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 언어로 서술하는 것으로(Eisner, 1997; Park, 2009, p. 37에서 재인용), 타인의 연주나 음악에 대한 사고 표현에 대해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Park, 2009). 따라서 감상력은 감상자가 음악 행위자와의 공감을 토대로 음악에 대해 소통함은 물론 표현의 질에 대한 비평을 통해 표현의 수정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음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역량이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감상 영역에서는 음악 비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5).”이며 이에 대한 감상자의 기능으로 구별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를 두었다. 여기서 감상자가 하는 ‘표현하기’는 감상한 음악 표현에 대해 말이나 글로 비평하는 것을 뜻하므로 앞서 논한 음악 행위자의 표현력과 그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박진홍(Park, 2018)은 중학교 음악과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 비평 활동을 표현, 감상 영역에 제시하였다. 표현 영역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연주와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 요소가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연주하는 자세와 연주법이 바르게 구현되었는지 등 연주 기술에 대한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 표현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감상 영역에서는 전문 음악가의 연주를 작품의 음악적 특징, 역사, 문화적 배경지식을 토대로 감상하고 느끼며 특징을 구별하는 것으로 비평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리머(B. Reimer)는 일반 음악교육에서 감상자는 음악연주에 있어 무엇이 수행되었고, 그 수행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반성할 수 있다고 하며 음악 비평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어떤 수준의 연주자, 창작자든지 기본적으로 음악적 기술, 감수성, 의미표현, 진정성의 4가지 측면을 평가의 준거로 두고 음악의 예술적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Reimer, 2003; 최은식, 곽덕주, 김경화 역, 2017).

우선, 감상자가 음악적 기술면에서 비평하는 것은 해당 작품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적 기술’, 즉, 테크닉을 충분히 익히고 연주에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는가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고음을 맑고 풍부한 발성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 피아노에서 빠른 패시지를 틀리지 않고 정확한 리듬으로 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습을 통해 체화된 기술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 ‘감수성’을 판단하는 것은 음악 속에 행위자의 느낌과 감수성이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음악에 대한 정서적 느낌은 풍부한 표현력을 통해 소리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음악 행위자가 ‘음악의 의미를 상상하여 표현했는지’를 비평한다. 행위자는 악보에 적힌 음들, 프레이즈, 곡의 분위기 등에 대한 느낌을 토대로 음악의 구체적인 의미를 상상하며 표현하므로 소리나 춤 표현에서 그 의미가 실감나게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진정성’은 음악 행위자가 음악에 대한 진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 참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머가 제시한 4가지 음악 비평의 준거는 감상자가 음악 행위자의 표현을 보다 잘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의 표현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내용이다. 학생들이 동료나 전문가의 연주, 춤 공연 또는 창작물을 접했을 때 단지 즐거웠다, 훌륭했다 등의 1차적 느낌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행위자의 표현의 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감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감상자와 행위자 간에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응용력

표현력이 기존의 작품을 연주로 재현하거나 기존 작품에 맞추어 춤을 추는 공연 형식과 관련된 역량이라면, ‘응용력’은 음악을 창작하거나 음악에 대한 감상을 그림, 글, 말 등으로 표현하는 역량이다. 음악창작은 작곡가와 작사가, 즉 음악 행위자의 역량에 해당한다. 또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장면에 대해 그림, 내러티브로 표현하거나 감상문, 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감상자의 역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응용력은 음악적 지식을 응용하여 창작하거나 그림, 언어 등 음악을 다른 영역으로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소통하는 것이며 음악 행위자와 감상자의 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음악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감상자와 공유하고 나누는 창작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음악 창작은 내면의 아이디어를 리듬, 선율, 화성 등 음악의 구성요소와 구조에 반영하여 작품으로 구현(Shin, 2019)하는 표현기술이다. 따라서 창작은 자신의 감정을 음악의 표현적 의도로 바꾸어 표출하는 작곡가 또는 작사가의 역량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공연자의 연주를 통해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음악적 소통의 참여자인 작곡가, 연주가, 감상자는 음악을 구성

요소와 이에 대한 음향적 표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한다 (Juslin & Lindström, 2003; Juslin, 2005, p. 98에서 재인용).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작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9음01-03]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작품을 만드는 것과 [9음01-04] 주제에 따른 음악극을 만드는 것(Ministry of Education, 2015b)을 성취기준으로 두고 개인 또는 모둠을 구성하여 중학생 수준의 교실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교과서에는 가사/말붙임새 만들기, 선율/리듬꼴 변형 또는 만들기, 즉흥연주, 음악극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표현기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가사 만들기(작사 또는 개사하기), 선율/리듬 변형 또는 창작은 초, 중학교수업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기능이다(Shin, 2019). 이같이 학교 수업에서 많이 다루지는 창작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음악 감상자 또한 음악 감상 후 음악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하여 표출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음악 행위자인 작곡자와 연주자 그리고 동료 감상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적 소통을 위해 감상자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는 그림그리기, 내러티브 만들기, 감상적 글쓰기나 말하기 등이 있다. 첫째, 그림그리기는 청각 예술인 음악을 시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음악이 가지는 청각적 특징과 미술이 가지는 시각적 특징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각 요소들 간에 유사성을 공유하므로(Cho, 2016), 음악의 특징과 그로 인해 떠오르는 내면의 느낌이나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불협화음이 섞인 느린 템포의 피아노 음악을 듣는다면 푸른색, 회색의 안개 낀 거리를 그릴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동료 감상자와 함께 음악에 대한 이야기와 느낌을 나눌 수 있다.

둘째, 음악을 표현하는 기술은 허구적인 이야기, 즉 내러티브 만들기도 포함된다. 마치 영화의 배경음악을 듣는 것처럼 음악이 이루는 기승전결의 진행에 따라 음악 속에 존재할 법한 허구의 인물을 설정하고 음악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가 처한 상황을 하나의 장면이나 연속성을 가진 이야기로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정혜윤, 2018; Kim & Chi, 2020, p.1352에서 재인용).

셋째, 음악에 대한 느낌을 감상문 쓰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음악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 정화하도록 돕고 불안이나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용기를 북돋는 등 감정을 떠올리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자기 심리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데, 이에 대해 감상자는 성찰적 글쓰기를 하거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Lee, 2020). 음악에 대한 개인의 내면적 정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고 타인과 공유, 소통된다.

4. 음악적 소통 역량의 배경변인

음악적 소통은 성별과 음악적 기술 수준 등 개인의 배경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Hargreaves, MacDonald & Miell, 2005). 여기서 음악적 기술은 악기연주, 음악해석, 음악표현 등으로 개인의 음악교육 경험에 의해 쌓아지는 지식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음악수업에서의 경험을 외에 음악학원, 개인레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에서 받은 노래나 악기를 배운 경험은 개인의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미엘과 맥도널드(D. Miell & R. MacDonald)는 영국의 11~12세 남녀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모듈별 작곡 협업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학생의 성별, 이전의 음악교육 경험, 모듈원과의 친밀도가 협업 과정에서 언어적, 음악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과제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음악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일수록, 친밀도가 높은 협력적 관계일수록 서로의 아이디어를 구축하려는 대화와 연주시연을 많이 하는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특히 음악교육 경험과 친밀도는 의사소통을 높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높은 과제 점수를 받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Miell & MacDonald, 2000). 따라서 성별, 음악교육 경험, 그리고 음악 모듈수업에서의 언어적 소통과 협력적 태도는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으로 구성되는 음악적 소통 역량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음악적 의사소통의 수준은 다년간의 음악 훈련, 듣기, 음악이해와 해석 등 음악교육 경험에 의해 어느 정도 정교해지고 발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리듬, 셈여림, 음정들이 조합된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Haroutunian, 2002). 즉,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음악적 소질은 음악적 소통과 관련되는 변인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공연에의 참여는 교과 활동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므로(Kim, Jeong & Oh, 2015) 음악적 소통 역량과 관련되는 변인이다. 음악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연주 표현 기량을 닦고 자기 평가를 하는 집중적인 연습 과정을 겪게 된다.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공연 경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므로 음악적 소통 역량 역시 발휘되고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인 중학생 대상 음악적 소통 역량에 관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검사 및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사립 남자중학교 1곳과 사립 여자중학교 1곳에 재학 중인 중학교 2, 3학년학생으로 일반적인 음악 교육 수준 및 특성을 지닌 중학교에서 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2021년 3월 22일 여자중학교 2학년의 3개 학급에 해당하는 70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남녀 중학생 2, 3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억효과에 의한 신뢰도의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여학생은 예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합된 남녀 중학생 260명의 응답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10부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성별 분포는 남학생 98명(46.7%)와 여학생 112명(53.3%)이었으며 학교별 분포는 남학교에서 98명(46.7%)과 여학교에서 112명(53.3%)이었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6개의 역량 중에서 ‘음악적 소통 역량’에 대한 것으로, 앞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 종합하여 확정된 4개의 하위 요인(표현력, 감상력, 응용력, 음악지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1차로 25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음악교육 전문가 2인과 교육평가 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여중생 70명에게 예비검사로 실시하여 실제로 검사도구 문항들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본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2문항을 삭제한 23개 문항을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로 확정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발된 23개 문항의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는 하위 요인별로 음악지식이 4개 문항, 표현력이 7개 문항, 감상력이 6개 문항, 응용력이 6개 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의 배경변인 문항과 최종 확정된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 23개 문항의 구성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Organization of questionnaires about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Category	Contents of questions	Number of questions
Students' Characteristics	Gender	1
	Experience of music lessons out of school	1
	Perception of his/her own musical talent	1
	Communication in music group class	10
	Preference for participation in musical performance	1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Expression	7
	Appreciation	6
	Application	6
	Musical knowledge	4
		Total 37

3.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첫째,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고찰하여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4가지 요인, 즉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을 확정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예비 검사를 소그룹에게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검사에 사용할 23개의 검사도구 문항을 확정하였다. 셋째, 음악적 소통 역량의 4가지 요인에 의한 구조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Cronbach- α 를 산출하여 개별 문항, 영역별 문항,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본 검사의 결과에서 평가된 학생들의 음악적 소통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적 소통 역량의 차이 및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가 실제로 4가지 요인구조를 가지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적으로 25개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요인분석에 대한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945로 높은 값이 나왔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유의미한 것($p < .001$)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5개의 문항이 모두 음악적 소통 역량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 문항이 의도한 결과와 다른 타 요인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악지식을 묻는 ‘나는 연주를 들려줄 사람과 연주 장소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는 표현력으로 나타났으며, 표현력을 묻는 ‘나는 악기를 연주할 때 빠르기, 셈여림, 음색 등을 사용해서 곡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는 음악지식으로 나타나 이 2개 문항을 삭제한 나머지 23개 문항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표현력 7개 문항, 감상력 6개 문항, 응용력 6개 문항, 음악지식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앞서 2개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설명변량은 69.188%에서 70.023%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3개 문항에 대한 요인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xploratory factors analysis of musical communication skills (23 questions in total) for middle school students

Item No.	Item content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xpression	Appreciation	Application	Musical knowledge
8	Expressing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when singing	.786			
10	Expressing the mood of music with dance	.749			
11	Dancing spontaneously to the music	.747			
9	Expressing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when playing a musical instruments	.742			
6	Utilizing the place for the performance	.704			
5	Eliciting responses from the audience	.672			
7	Expressing emotions with songs	.630			
15	Evaluating whether the expression conveys meaning of the music well		.771		
16	Evaluating the authenticity of a music performance		.770		

<Table 5> Continued

Item No.	Item content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xpression	Appreciation	Application	Musical knowledge
14	Evaluating of emotional expression in music performance		.769		
17	Evaluating of doing one's best in music performance		.697		
13	Evaluating of musical techniques		.617		
12	Interpreting emotions or messages in musical expressions		.542		
21	Expressing the appreciation of music in narratives			.785	
20	Expressing the appreciation of music by drawing			.777	
22	Expressing the appreciation of music in writing			.701	
23	Telling others how I feel about music			.683	
19	Writing lyrics			.616	
18	Creating a melody			.539	
2	Understanding sheet music				.822
3	Knowledge of performance posture and how to play music				.769
1	Knowledge of musical terminology and genre				.766
4	Background knowledge of works				.617
	Eigen value	4.895	4.089	3.845	3.276
	Variance	21.284	17.778	16.720	14.242
	Accumulated percentage	21.284	39.061	55.781	70.023

2) 하위 요인별 상관관계

음악적 소통 역량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 요인과 전체 점수에 대하여 각 평균값을 구하고 다음 <Table 6>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하위 요인 및 전체 점수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579 ~ .890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이 4가지 하위 요인이 음악적 소통 역량의 특성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sub-factors

	Musical knowledge	Expression	Appreciation	Application	Total score
Musical knowledge	1				
Expression	.622***	1			
Appreciation	.643***	.688***	1		
Application	.579***	.676***	.705***	1	
Total score	.789***	.890***	.881***	.870***	1

*p<.05, **p<.01, ***p<.001

3) 신뢰도 분석

음악적 소통 역량의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23개의 문항에 대한 α 계수는 .956으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에 있어서도 음악지식

<Table 7>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for measuring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No.	Sub-factor name	Contents of questions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1	Musical knowledge (4)	I know about the terms and genres of music.	.954	.862
2		I can read the rhythm and pitch at the sheet music.	.955	
3		When I sing or play an instrument, I know the posture and how to play according to the song.	.954	
4		When I sing or play an instrument, I know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ackground of the song.	.954	
5	Expression (7)	When I sing or dance, I elicit a response from the audience.	.953	.921
6		I utilize the place (music classroom, stage, karaoke, etc.) for my musical performance.	.953	
7		When I sing, I express the meaning and emotion of the lyrics by using tone, dynamic and intonation.	.953	
8		When I sing, I make facial expressions or move my body when I'm immersed in emotions.	.954	
9		When I play a musical instrument, I make facial expressions or move my body when I am immersed in emotions.	.954	
10		When I dance, I express it with delicate movements so that people can feel the atmosphere of the music well.	.953	
11		I dance spontaneously to the mood of the music.	.954	

<Table 7> Continued

No.	Sub-factor name	Contents of questions	If item deleted	Cron -bach's α
12	Appreciation (6)	I can interpret the emotions or messages expressed by the composer or the presenter in a musical performance.	.953	.911
13		I can judge and say whether the presenter's musical techniques were poor or skillful in a musical performance.	.953	
14		I can judge and say whether the presenter expressed enough emotion in a musical performance.	.953	
15		I can judge and say whether the presenter expressed the meaning of music well in a musical performance.	.953	
16		I can tell by judging whether the presenter expressed it with sincerity in the musical performance.	.954	
17		I can judge and say whether the presenter did his/her best in playing music.	.955	
18	Application (6)	I can make a simple melody with my feelings expressed.	.953	.891
19		I can write lyrics about the emotions I feel in music.	.954	
20		I can express the feeling of music in colors or pictures.	.954	
21		I can express the feeling of music in scenes or stories.	.954	
22		I can write down my feelings about music.	.955	
23		I can tell the other person how I feel about music.	.954	
Cronbach's α of the total 23 questions			.956	

$\alpha = .862$, 표현력 $\alpha = .921$, 감상력 $\alpha = .911$, 응용력 $\alpha = .891$ 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해당 문항이 삭제될 시에 신뢰도 지수 α 값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별 문항들도 신뢰도가 높게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음악적 소통 역량 수준 분석

1) 문항별 점수 비교

‘음악적 소통 역량’을 측정한 결과로 23개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Table 8>. 전체적으로 볼 때 음악지식, 감상력, 응용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악지식을 요하는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1~11위를 차지하여 중학생들에게 비교적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력과 창작 관련 응용력은 12위~23위까지 하위권에 분포되어 있고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1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감상력 중 17번, ‘나는 음악연주에서 발표자가 최선을 다하였는지 판단하여 말할 수 있다.’로 평균 3.39점을 받았다. 이는 특별한 음악지식이 없어도 행위자가 공연(발표)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23위의 문항은 표현력 중 11번, ‘나는 춤을 출 때 음악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동작을 만들어 추기도 한다.’로 평균 2.36점을 받았다. 그리고 22위의 문항도 춤 표현과 관련된 문항(10번, 나는 춤을 출 때 사람들이 음악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한 동작으로 표현하다.)임을 볼 때 학생들에게 음악에 맞춰 춤추는 신체표현은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보다 더욱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Comparison of item scores

Ranking	Item No	Item contents	N	Mean	SD	Sub-factor name
1	⑰	Evaluating of doing one's best in music performance	210	3.39	1.035	Appreciation
2	②	Understanding sheet music	210	3.32	1.260	Musical knowledge
3	㉓	Telling others how I feel about music	210	3.29	1.114	Application
4	③	Knowledge of performance posture and how to play music	210	3.24	1.098	Musical knowledge
5	㉑	Expressing the appreciation of music in narratives	210	3.17	1.210	Application
6	㉒	Expressing the appreciation of music by drawing	210	3.16	1.211	Application
7	⑯	Evaluating the authenticity of a music performance	210	3.13	1.006	Appreciation
8	①	Knowledge of musical terminology and genre	210	3.05	1.088	Musical knowledge
9	㉔	Expressing the appreciation of music in writing	210	3.00	1.188	Application
10	⑭	Evaluating of emotional expression in music performance	210	2.96	1.110	Appreciation
11	⑮	Evaluating whether the expression conveys meaning of the music well	210	2.94	1.103	Appreciation
12	⑧	Expressing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when singing	210	2.91	1.270	Expression

<Table 8> Continued

Ranking	Item No	Item contents	N	Mean	SD	Sub-factor name
13	⑨	Expressing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when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210	2.84	1.191	Expression
14	⑦	Expressing emotions with songs	210	2.80	1.096	Expression
15	⑬	Evaluating of musical techniques	210	2.80	1.127	Appreciation
16	⑫	Interpreting emotions or messages in musical expressions	210	2.78	1.119	Appreciation
17	⑰	Writing lyrics	210	2.71	1.251	Application
18	④	Background knowledge of works	210	2.68	1.080	Musical knowledge
19	⑤	Eliciting responses from the audience	210	2.67	1.137	Expression
20	⑱	Creating a melody	210	2.66	1.220	Application
21	⑥	Utilizing the place for the performance	210	2.66	1.105	Expression
22	⑩	Expressing the mood of music with dance	210	2.49	1.163	Expression
23	⑪	Dancing spontaneously to the music	210	2.36	1.202	Expression

2) 요인별 점수 비교

하위 요인별로 평균을 구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가장 점수가 높은 요인은 음악지식(M=3.071, SD=.954)이며, 그 다음으로 감상력과 응용력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M=3.000, SD=.963).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표현력(M=2.676, SD=.9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적 소통 역량 중 음악지식, 감상력, 응용력보다 직접 감상자에게 노래, 악기 연주를 들려주거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표현력이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력이 음악 소통 참여자 중 음악 행위자의 역량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중학생 시기에 급격한 신체변화가 일어나고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지는 사춘기를 겪게 되어 음악 감상을 선호하고 가창, 기악활동을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Kim, 2012). 또한 COVID-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 원격수업 운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창, 기악, 창작 등의 실기 수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고 감상과 이론수업 위주로 학교수업이 진행되었던 상황(Park, 2021; Lim & Kwon, 2020)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9> Mean scores of sub-factors in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Ranking	Sub-factor name	Mean(SD)
1	Musical knowledge	3.071(.954)
2	Appreciation, application	3.000(.963)
3	Expression	2.676(.966)
Total score		2.914(.818)

3. 음악적 소통 역량과 학생 배경변인의 관계

1) 성별

음악적 소통 역량 점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별 점수 및 전체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10>과 같이 모든 요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방에게 음악적 행위로 표출하여 전달하는 표현력에서 .636점으로 많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작곡/작사, 감상 후 느낌을 그림, 내러티브, 감상문이나 말로 표현하는 응용력에서 .615점의 차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표현력 및 응용력에서 매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0> Comparing the scores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by gender

	Total students (N=210)	Girls (N=112)	Boys (N=98)	Difference value	t value
	M(SD)	M(SD)	M(SD)		
Musical knowledge	3.071(.954)	3.290(.898)	2.821(.959)	.469	-3.639***
Expression	2.676(.966)	2.973(.937)	2.337(.879)	.636	-5.075***
Appreciation	3.000(.963)	3.275(.904)	2.685(.795)	.590	-5.031***
Application	3.000(.963)	3.287(.941)	2.672(.890)	.615	-4.867***
Total score	2.914(.818)	3.189(.785)	2.599(.742)	.590	-5.592***

*p<.05, **p<.01, ***p<.001

2) 학교 외 음악교육 경험 유무

‘학교 음악시간 외에 따로 노래나 악기 연주를 3개월 이상 배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원, 개인 레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음악수업 외의 교육을 통하여 음악 실기를 배웠던 남녀 중학생은 210명(100%) 중 158명(75.2%)이었으며 교육경험이 전혀 없었던 학생은 52명(24.8%)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따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학교 외 음악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별, 전체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11>. 분석 결과, 학교 외 음악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 전체 점수 등 모든 점수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점수 차를 나타낸 요인부터 나열하면 음악지식, 응용력, 감상력, 표현력 순이었다. 이 중 음악지식은 .855의 매우 큰 점수 차를 보였는데, 정기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음악용어나 장르, 악보읽기, 연주 자세와 연주법, 곡의 특징과 배경 지식 등이 자연스럽게 누적 학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표현력은 .475로 표현지식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차를 보였다. 음악수업 외의 음악교육이 노래(보컬),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실기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데에 대해 현재의 음악실기 교육의 목적과 학습 경험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1> Comparing the scores of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by ‘experience of music lessons out of school’

	Experienced (N=112)	Inexperienced (N=98)	Difference value	t value
	M(SD)	M(SD)		
Musical knowledge	3.283(.901)	2.428(.819)	.855	6.371***
Expression	2.794(.972)	2.319(.848)	.475	3.378***
Appreciation	3.123(.874)	2.625(.892)	.498	3.512***
Application	3.159(.944)	2.516(.873)	.643	4.514***
Total score	3.060(.788)	2.469(.753)	.591	4.856***

*p<.05, **p<.01, ***p<.001

3) 음악적 소질 인식

‘스스로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19명으로 56.667%가 음악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였다. 그리고 음악적 소질 인식과 음악적 소통 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r = .540(p < .001)$ 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이한 점은 상관 계수가 높은 요인부터 나열하였을 때 음악지식이 $r = .550(p < .001)$ 로 다른 3개의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음악지식이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음악 관련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소질과 연관되는 음악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지식은 음악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소양이므로 음악적 소통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위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음악이론, 음악사, 독보, 악기연주법 등의 내용적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이나 감상활동과 연결하여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his/her own musical talent’ and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Musical knowledge	Expression	Appreciation	Application	Total score
Perception of his/her own musical talent	.550***	.460***	.427***	.459***	.540***

* $p < .05$, ** $p < .01$, *** $p < .001$

4) 음악 모듈수업에서의 소통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지선화 외(Ji, Yoon & Cho, 2019)와 윤성원(Yoon, 2020)은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배려, 협동, 갈등 조정 및 해결 등이 포함하였다. 또 박선화 외의 연구보고에서는 여럿이 서로 음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모듈수업이 실기수업과 함께 음악적 소통 역량 함양에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조사되었다(Park, Moon, Jang, Lim & Han,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 모듈수업에서의 소통 정도를 살펴보고 음악적 소통 역량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Table 13>과 같이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는 음악 모듈활동에서의 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고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였다. 아래 10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3.491($SD = .804$)이었다.

<Table 13> Items of the questionnaire, ‘communication in music group class’

No.	Contents of questions about communication in music group class
1	I am good at presenting musical ideas and opinions when I participate in music group activities.
2	When I disagree with my friend during music group activities, I persuade him by citing objective grounds such as the purpose of the activ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3	I actively communicate with all the members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nd music presentation exercises.
4	I tend to come forward and mediate when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my friends.
5	I can ask, agree or refute my friends' opinions after I understand them.
6	I can listen to my friends' opinions and analyze them and talk about what is good and what is lacking.
7	I respect and listen to my friends' opinions when I participate in music group activities.
8	When I hear my friend's opinion, I respond positively, such as smiling, nodding, and eye contact.
9	When I participate in music group activities, I refrain from laziness and impulses and act responsibly.
10	I cooperate even if there's a hard time in music group activities.

음악 모둠활동에서의 소통 평균점수와 음악적 소통 역량의 각 하위 요인별, 전체 점수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r = .727(p < .001)$ 로 나타나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Table 14>. 즉, 연구대상들은 동료와 함께 음악을 함께 만들거나 음악에 대해 조사하는 모둠수업 상황에서 의견 제시, 적절한 반응, 언쟁 조정, 협력적 태도 등을 잘 취한다고 생각할수록 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 등 음악적 소통 역량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 교과에서의 모둠수업에서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합창/합주, 공동 창작을 수행하여 표현하거나 음악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느낌을 표현하는 감상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음악에 관한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모둠 수업은 음악적 소통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Table 14>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in music group class’ and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Musical knowledge	Expression	Appreciation	Application	Total score
Communication in music group class	.560***	.633***	.678***	.622***	.727***

* $p < .05$, ** $p < .01$, *** $p < .001$

5) 음악 공연 참여 선호

‘학교 내외의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나요?’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으로 대답한 학생은 전체 210명 중 66.19%에 해당하는 139명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악 공연은 노래, 밴드, 오케스트라, 춤 공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감상자 수나 장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형식임을 표기하였다.

음악 공연 참여에 대한 선호와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별, 전체 점수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할수록 음악적 소통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의 정도는 $r = .5$ 내외로 보통 수준이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의 4가지 하위 요인을 비교하여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부터 나열하면 표현력($r = .584$), 음악지식($r = .507$), 응용력($r = .485$), 감상력($r = .455$) 순으로, 공연에 즐겨 참여할수록 표현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생의 표현력 평균 점수는 다른 하위 요인보다도 가장 낮은 2.676($SD = .966$)점이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의 핵심인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즐거운 음악 공연의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Table 15>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 for participation in music performances’ and ‘musical communication competency’

	Musical knowledge	Expression	Appreciation	Application	Total score
Preference for participating in music performances	.507***	.584***	.455***	.485***	.592***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적 소통 역량을 개념화한 후 중학생을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음악적 소통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중학생의 특성과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음악적 소통 역량의 4가지 하위 요인(음악지식, 표현력, 감상력, 응용력)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소그룹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 210명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문항으로 검사도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23문항은 음악적 소통 역량의 4가지 하위요인에 의해 수치적으로 잘 분류되어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적 소통 역량의 의미는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으로,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역량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과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음악적 소통에 가담하는 참여자를 음악 행위자와 감상자로 나누고 필요한 지식과 기능적 측면이 무엇인지 고려하였다. 설정된 하위 요소는 모든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지식 소양인 ‘음악지식’, 음악 행위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맥락과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게 음악연주, 신체로 표현하는 ‘표현력’, 감상자가 상대방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그 표현의 질을 비평하는 ‘감상력’, 음악 행위자가 음악을 창작하거나 감상자가 음악에 대한 느낌을 그림, 내러티브, 감상문, 말 등으로 표현하는 ‘응용력’이다. 한편 신뢰도 지수 Cronbach- α 는 .956으로 높은 값이 나와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음악적 소통 역량을 분석한 결과 하위 요인에서 표현력이 다른 하위요인들(음악지식, 감상력, 응용력)보다 어려운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하위요인들에서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3점대의 수준을 보였으나, 표현력에 속하는 문항들은 모두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셋째, 음악적 소통 역량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성별, 학교 외 음악교육 경험 유무, 음악 공연 참여 선호, 음악 모둠수업에서의 소통, 음악적 소질 인식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모든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표현력과 응용력에서 강점을 보였다. 학교 음악시간 외에 따로 노래, 피아노 등 음악을 배웠던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표현력보다 음악지식에서 매우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음악적 소질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역량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공동 목표를 두고 상호 협력하는 모둠 음악수업에서는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적으로 잘 참여할수록 음악적 소통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선호도가 높을수록 음악적 소통 역량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적 소통 역량 검사도구는 중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판단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음

악적 소통 역량의 4가지 하위 요인 점수를 비교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도 각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학교 현장 음악교사들이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음악적 소통 역량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에 있어 2개의 중학교의 중학생으로만 표집 되었기 때문에 중학생 전반에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개발하였으므로 향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는 학생이 자신의 음악적 소통 역량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후 실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은 음악을 표현하는 실기 능력과 음악에 대한 느낌을 그림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펼칠 때 발현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음악 수행 결과와 검사 결과를 함께 분석한다면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더욱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Baek, S. G., Yoon, S. H., Shin, A. N., Son, J. Y., & Kim, Y. K. (2017). The development and the validation of six core competencies measurement scale f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0(3), 363-395.
- Burger, B., Saarikallio, S., Luck, G., Thompson, M. R., & Toiviainen, P. (2012).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emotions in music and music-induced movement. *Music Perception*, 30(5), 519-535.
- Cho, S. I. (2016). A study of foundation of integrated education of music and art clas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4(2), 89-103.
- Chung, H. Y. (2018). Is empathy for music possible and effective? *Music Theory Forum*, 25(2), 161-192.
- Davidson, J. W. (2012). Bodily movement and facial actions in expressive musical performance by solo and duo instrumentalists: Two distinctive case studies. *Psychology of Music*, 40(5), 595-633.
- Elliott, D. J., & Silverman, M. (2021).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2nd ed.). Trans Choi, E. S., Kwon, D. W., Jung, J. E., Shin, J. H., Seung, Y. H., Seog, M. J., Yoon, M. J., Lee, S. J., Jung, J. W., Moon, K. S., Choi, M. Y., Oh, J.

- H., & Ham, H. S. Paju: Kyoyookkwahaksa. (Original published work 2015).
- Hargreaves, D. J., MacDonald R., & Miell, D. (2005). How do people communicate using music? In Miell, D., MacDonald, R., & Hargreaves D. J. (Eds.), *Musical communication* (pp. 1-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outounian, J. (2002). *Kindling the spark: Recognizing and developing musical tal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ng, G. J. (2018). An Analysis of the music subject competence in 3rd and 4th grade music textbook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7, 175-202.
- Ji, S. H., Yoon, S. W., & Cho, D. H. (2019). Specification of core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Music and Critic*, 11, 99-121.
- Jin, E. N., Yu, C. W., Jang, G. J., Lee, Y. M., Park, S. Y., Yang, Y. J., Baek, K. S., Ryu, S. H., & Park, J. J. (2015).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to promote core competencies: Practical (technology and home), physical education, music and art* (RRC 2018-8). Jincheon: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Ju, D. C. (2017). An efficient application of a competence-based music curriculum to a music textbook: Focused on a German elementary music textbook.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4), 171-191.
- Ju, D. C. (2019).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cent German curricula for music clas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223-251.
- Juslin, P. N. (2005). From mimesis to catharsis: expression, perception, and induction of emotion in music. In Miell, D., MacDonald, R., & Hargreaves D. J. (Eds.), *Musical communication* (pp. 85-11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uslin, P. N., & Lindström, E. (2010). Musical expression of emotions: Modelling listeners' judgements of composed and performed features. *Music Analysis*, 29(13), 334-364.
- Kim, H. S. (2018). The designing of the phases of, and the verification, of the danso instruction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cultivation of the musical communication capabilities: Centered on the performance of the folk song tori.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2), 881-894.
- Kim, J. H. (2019).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1), 33-51.
- Kim, J. S., Jeong J. E., & Oh, J. H. (2015).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nsemble program in school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0(6), 29-47.

- Kim, S. Y., & Chi, E. L. (2020). Developing musical emotion competenc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s with students' characteristic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4), 1343-1369.
- Kim, S. Y., & So, K. H. (2021). Exploring the way of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for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In comparison with the music curriculum in British Columbia, Canad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2), 39-68.
- Kim, Y. M. (2012). A survey study on the effective music activities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music education: With the report of student-teaching as a basi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5, 35-56.
- Lee, I. H. (2019). The sub-element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as core competence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2(3), 1-29.
- Lee, J. W., Koo, N. W., & Lee, I. H. (2016). *Classroom assessment methods for enhancing students' core competencies: Focusing on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RRE 2016-10). Jincheon: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K. E. (2019).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mpetences i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61-84.
- Lee, R. (2020). Exploratory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convergence with music in writing clas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8), 88-100.
- Lim, E. J., & Kwon, S.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non-face-to-face music online remote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3), 165-184.
- Miell, D., & MacDonald, R. (2000). Children's creative collaborations: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when working together on a musical composition. *Social Development*, 9(3), 348-369.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Min, K. H. (2020). Analyzing the problem of 2015 revision music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ies and discuss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new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3), 143-161.
- Min, K. H., Kim, S. Y., Kim, Y. H., Pang, K. J., Seung, Y. H., Yang, S. M., Lee,

- Y. K., L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7).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3rd ed.). Seoul: Hakjisa.
- Namkung, J. Y., Kim, Y. B., Park, K. H., Jung, D. C., & Park, H. J. (2015). *KEDI survey research on student competencie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struments* (RR 2015-31). Jincheon: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rk, J. H. (2009). The creation of a music learning and teaching program using music criticism activities.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2, 27-56.
- _____ (2018). Exploration into application fields of musical criticism in music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7, 117-133.
- Park, J. H. (2017). An exploration on the key competency for enhancing musical literacy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723-731.
- _____ (2019).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meaning and elements of the competency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9(6), 83-91.
- _____ (2020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ies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and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of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161-180.
- Park, J. M. (2021). Difficulties experienced by elementary teachers in untact remote music classes following COVID-19 and support plan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6(1), 91-112.
- Park, M. H. (2020b). The effect of violin ensemble club program based on arts profel on metacognition.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5(1), 43-64.
- Park, S. E., & Park, J. H. (2019). A study on teaching · learning method for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to improve music communication competency: Using flipped learning.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11, 181-201.
- Park, S. H., Moon, Y. J., Jang, G. J., Lim, Y. J., & Han, G. Y. (2018). *Methods for integrating instruction with evaluation for the enhancement of subject competencies: Focusing on Korean, history, mathematic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music* (RRI 2018-5). Jincheon: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Reimer, B. (2017).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3rd ed.). Trans Choi, E. S., Kwak, D. J., & Kim, K. H. Paju: Kyoyookkwahaksa. (Original published work 2015).
- Seog, M. J., Moon, K. S., & Choi, M. Y. (2017). A study on empathy in music education.

- Kore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205-223.
- Shin, H. K. (2019). Analysis of music-creating activit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music textbooks based on 2015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691-710.
- Van Dyck, E., Burger, B., & Orlandatou, K. (2017). The communication of emotions in dance. In Lesaffre, M., Maes, P. J., & Leman, M.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embodied music interaction* (pp. 122-130). UK: Routledge Press.
- Yang, J. M. (201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re competence and musical competence: Korea, Japan,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US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77-103.
- Yoon, S. W. (2020). A study on the music subject literac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3, 1-19.